

해설 시나리오

1. 프로그램 진행 개요

프로그램명	비자향 가득한 백양골 자연·문화해설	해설사	문기웅
해설주제	내장산국립공원의 지정 목적과 천연기념물 비자나무를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에 대하여 알아본다.		
대상 및 인원	일반 성인 20명	소요시간	20분

2. 세부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장산국립공원을 소개할 백암사무소의 비자향 가득한 남자 문기웅입니다. 이렇게 내장산국립공원 백양사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이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니 오길 잘했다고 생각되시나요? 숲에 오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숲의 나무들은 많은 산소를 만들어 우리를 기분 좋게 해줍니다. 또 먼지를 흡수하여 정화해 주기 때문에 도시보다 100배 맑고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곳은 어디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이곳은 국립공원입니다. 그럼 국립공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이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곳입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 보고, 문화유산의 보고, 빼어난 자연경관, 삶의 질을 높여주는 휴식 공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 놓을 자원, 동식물의 마지막 피난처 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중 오늘 여러분께서 방문하신 이곳은 내장산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1971년 11월에 우리나라에서 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과 이 곳 백암산, 그리고 남창계곡으로 유명한 입암산, 이렇게 3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백암산과 입암산을 저희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왜 중요한 곳인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국립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참여유도/의견정리)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주인인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어

떠한 것들이 있을까요?(참여유도 : 쓰레기투기, 자연훼손행위, 비지정탐방로 이용, 야영 및 취사, 흡연, 애완동물 입장 등 답을 유도하고 보충설명)

자 이제까지 이곳을 포함한 국립공원이 어떠한 곳이며 무엇을 잘 지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배웠습니다.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라 빠트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백양골을 대표하는 나무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앞에 있는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무의 잎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주목나무 잎과 비슷하며,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아몬드처럼 생겼습니다. 또 한자 아널비자 모양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참여유도/의견정리) 맞습니다. 이 나무를 비자나무라고 부르는데 내장산국립공원내의 비자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자나무가 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까요? (대답유도/의견정리) 그 이유는 이곳이 비자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숲으로 식물분포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되고 있습니다. 무려 8,000여 그루나 군락을 이루고 있고 우리 백양골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럼 이제 비자나무 향을 맡아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비자나무 특유의 향기가 느껴지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가을이 되면 이처럼 상쾌한 비자향이 온 산을 뒤덮는 답니다.

비자나무와 같은 침엽수는 각종 병균과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것을 피톤치드라고 합니다. 피톤치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향기도 나지 않지만 우리가 숲에 오면 느껴지는 상쾌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자향과 함께 피톤치드를 생각하면서 숨을 크게 내쉬고 들이 마시면서 상쾌함을 느껴볼까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비자나무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활용) 열매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참여유도/의견정리) 아몬드나 땅콩처럼 생긴 씨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비자라고 부릅니다. 이 비자나무 열매는 기생충을 없애는 효과도 있어서 약이 귀했던 옛날에는 구충제로 먹었습니다.

비자나무의 목재 역시 귀하게 쓰였는데요, 나이테가 촘촘해 마치 나이테가 없어 보이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성장이 더딘 만큼 재질이 치밀하면서도 연하고 좋아 바둑판의 재료로 쓰입니다. 또 습기에도 잘 견뎌 배나 관을 만들때도 유용하게 사용되어 '나무의 황제' 라 불립니다.

저와 함께 한 해설은 여기까지 인데요, 비자나무를 비롯하여 이곳의 수많은 나무들이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면서도 아늑한 자연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곳이 국립공원입니다. 오늘 탐방 하시는 이 시간만큼은

국립공원의 맑은 공기와 함께 기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사) 숲 연구소》 홈페이지(www.ecoedu.net)

《주제별 생태놀이》 p54, p253, 환경택 글, 그림 (황소걸음)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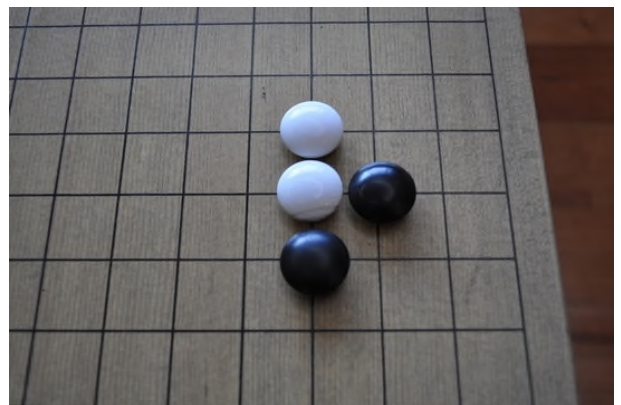
상큼한 향을 가진 비자나무 열매



한자 아닐비(非)를 닮은 비자나무 잎



구충제 효과를 가진 비자나무 씨앗



바둑판으로서 훌륭한 목재를 가진 비자나무